

삼성전자, 사장단 실리콘밸리 방문

최지성 전임 부회장 지시로 ... 새로운 트렌드 관찰에 업무협력 타진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휴대전화, TV, 카메라 등을 담당하는 핵심 사업부장들이 실리콘밸리를 찾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윤부근 CE담당(생활가전·TV) 사장과 신종균 IM담당(휴대폰·PC 등) 사장, 김현석 영상 디스플레이사업부장(부사장), 한명섭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전무) 등 DMC(세트)부문 사업부장들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

최지성 삼성전자 전 대표이사(부회장)가 실리콘밸리 출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지성 부회장은 6월 7일 인사에서 미래전략실장으로 이동해 불참한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로 출장을 가는 것은 이례적으로, 전자업계에서는 사장단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직접 관찰하며 도약을 위한 신선한 자극과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급부상하는 IT기업들과 세계 최고 인재, 창업자금과 연구단지가 모인 IT산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실리콘밸리 관련기업들을 탐방하며 유망 벤처기업들을 다수 만나고, 실리콘밸리의 통신·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과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2>